

소수의 남은자만 구원받고 휴거받는다

롬11:1-5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 17일 동안 미국 방문 잘 다녀왔다. 이번에는 2월 1일부터 4일까지 나흘 동안 애틀랜타에서 성경 강연회, 해오름 침례교회(미국 Sunrise Baptist church), 홍문공 목사님 부부, 6명의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년 전에 미국 방문, 제 딸이 클리브랜드에 사는데 클리브랜드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신 홍문공 목사님과 이메일 연락, 전화하게 되었다. 애틀랜타에 초청하고 싶다는 말씀, 오직 복음을 위해 그 뒤 이메일, 카톡 등이 오가며 구체화되고 이번에 방문함. 인원 걱정을 하심. “인원에 신경 쓰지 마시라!” 성경 300부, 재림과 휴거 바로 알기, 칼빈주의 바로 알기, 개분석 등 무료 책자 300세트 배로 보냄 드디어 2월 4일 목요일 저녁이 되었다. 사람들이 예배당에 차기 시작하더니 한 250여 명이 온 것 같았다.

목사님과 성도들 모두가 놀라기 시작함. 끝난 뒤 목사님 말씀, “요즘 부흥회 이렇게 안 모입니다.” 시카고, 워싱턴, 앨라배마, 미시시피, 노스 캐롤라이나, 플로리다 등에서 비행기로, 차로 많은 분들이 오심

둘째 날, 셋째 날 120명 명(새로운 분들도)

마지막 주일 100여 명, 합계: 적어도 300명 이상이 한 번은 집회에 참석함

모든 소책자 세트 나가고 성경도 요청이 많아 거의 다 소진되었다.

1982년에 캐나다, 그 뒤 1985년에 미국 유학 갈 때, 내가 목사가 돼서 성경 사경회를 위해 미국 땅을 밟으리라고는 생각해 보지 못함, 우리 교회의 유튜브 미디어 사역이 큰 영향을 미침을 볼 수 있었음 왜 이들은 몇 시간씩 비행기까지 타고, 여러 시간 자동차를 타고 이 집회에 올까?

말씀의 기근이 들어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내 설교가 좋다는 말이 아니다.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좋아서 들으려고.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교회에 가서 제대로 된 설교를 들을 수가 없다.

성경적으로 예배드리기가 너무 어렵다.

미국 한국 교회들 록음악 드라이아이스 스모크 이것은 예배가 아니다.

(오순절 은사 운동 기복 신앙, 말씀 강해가 없다).

집회 후 한 분의 문자: 정동수 목사님, 아무개 형제입니다. 앨라배마 어번에서 애틀랜타로 올라와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신 바이블 컨퍼런스에 참석하며 보낸 나흘간의 시간이 18년간의 저의 미국 이민 생활 중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참으로 감사드리고, 이런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더더욱 감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만이 올바른 믿음, 올바른 신앙을 낳는다는 저의 외로운 신념이 결코 틀린 것이 아니었다는 확신을 몇 년 전부터 목사님과 사랑침례 교회의 미디어 사역을 통해 갖게 되었고, 그 힘으로 먼 곳 타국 이민생활을 해 왔습니다. 또한 목사님과 사모님을 개인적으로도 만나게 된 인연은 제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격려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모쪼록 나머지 여행 일정 잘 소화하시고 한국에 잘 귀국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틀랜타에는 아마도 10만 명의 교민, 신문, 라디오 방송, 네이버 블로그 등 광고

애틀랜타에서 집회에 온 사람은 아마 200여 명, 나는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재림과 휴거의 복된 소망, 부활, 구원을 선포함,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

어쩌면 다 라아서 안 왔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가능성은 매우 적다.

예수님의 말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마11:5; 13:9; 13:43 등).

이번 집회를 마치면서 앞으로 남은 목회 기간, 오직 성경 강해, 구원, 성화, 재림과 휴거, 부활, 여기에 올인해야겠다는 생각을 함

마10:28,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둘 다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마16:26,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왜 이렇게 들으려는 사람들이 적을까?

그런데 들으려 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성경 강해 설교를 좋아할까?

내 설교나 강해에 유머나 예화가 많은 것도 아니고 어느 면에서 무미건조한데.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조망해 보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산 사람들은 수가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달음. 인간 역사에서 소수의 남은 자들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구하였다. 히11장의 믿음의 사람들, 다수가 아니라 소수였다.

오늘 <소수의 남은 자만 구원받고 휴거받는다>, 다시 한번 강조

남은 자(remnant)

나머지(*), 단수로만 92회(구약 86, 신약 6), s가 없어도 복수 취급

많은 경우 어떤 사람들 가운데 남아 있는 자들, 물건들 가운데 남은 것들을 뜻한다.

그런데 신구약성경에는 특별히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떠는 소수의 신자들을 렘헨트라고 부른다.

렘넨트: 하늘 보고 사는 사람들

성경의 개념: 무서운 재앙 이후에 살아남아서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무리(사10:20-23)

남은 자 개념은 신명기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신4:27-31; 28:62-68; 30:1-10) 대언자들은 아시리아와 바빌론 포로 생활과 관련해서 이 개념을 밝히 보였고 또 최종적으로 메시아 왕국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에서 의로운 남은 자들이 모일 것도 대언했다. 대언자 아모스와 이사야 역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이야기했다(사1:9; 암5:14-15).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 고통을 당하였고 반역하는 자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였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 역시 이 개념을 도입하였다(롬11:1-5)

원래 이 부분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말씀(1-2)

이스라엘 대체 신학 No!

하나님은 시대마다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신실한 성도들을 남겨 두신다(롬11:2-5).

배경: 왕상 18-19장, 엘리아, 갈멜 산에서 바알의 대언자들과 대결하여 승리함, 이세벨의 경고(19:2) 엘리아의 피신, 죽기를 구함, 밤낮으로 40일을 도망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함(8). 굴에 거함 하나님의 음성(13),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그의 대답(14), 하나님의 사명(15-17),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18)

당시 남왕국 유다와 북 왕국 이스라엘 분열, 남북 모두 명목상으로는 다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 지금 식으로 말하면 주일 성수, 십일조 헌금, 교회 봉사,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 특별히 10지파로 이루어진 북왕국 이스라엘, 남은 자는 7,000명밖에 없었다. 적어도 200만 명의 어른들, 그 가운데 7,000명만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 0.3-0.4%

분명한 말씀: whdryd의 틀과 형식은 있었지만 구원받은 자가 심히 적었다.

롬11:5, 여기도 1차 의미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이들만 구원받는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해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이들만 구원받는다.

눅13:22-24, 마7:13-14

노아: 창5-10장

예수님의 말씀: 올리브 산 설교, 재림 때의 상황 마24:37-39

마지막은 노아의 때와 같다. 먹고사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다.

노아는 라멕의 아들이요 므두셀라의 손자였는데 그의 나이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생겼다. 홍수 이후에 그는 350년을 살았고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2년 전에 죽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족장들의 계보에 속하였고 의인이요(겔14:14, 20, 이스라엘의 타락, 노아, 다니엘, 욥) 또 의의 선포자였다(벧전3:19-20; 의의 선포자 벧후2:5).

당시 세상의 상태: 창6:5-6, 11-13

창6:3, 120년: 끝을 낸다(히11:7; 벧전3:19-20; 벧후2:5). 더 이상 대언자들을 보내지 않는다.

사람의 수명이 120년이 되는 것은 성경 자체가 부인한다. 그러므로 노아는 480세 되었을 때에 세상 종말의 메시지를 받았고 의의 선포자가 되었다.

그는 120년 동안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마24:37). 노아는 믿음의 좋은 본보기였으며 하나님의 경고를 믿고 두려움으로 움직였으며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수행하였다(히 11:7).

히11:7,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며 그것에 의해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120년 동안 선포하였으나 자기 가족 외에는 아무도 구원하지 못함

룻: 창18-19장

눅17:28-29

소돔과 고모라, 유향불 심판, 아브라함의 탄원, 50명(창18:24), 45명(28), 40명(29), 30명(30), 20명(31), 10명(32), 룻의 가족: 룻과 그의 처, 적어도 네 명의 딸들, 적어도 두 명의 사위들(적어도 8명), 19:14, 사위들의 반응(14), 농담하는 자로 여김, 그의 두 딸도

눅18:8,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가진 자가 많지 않다(8). 여기의 믿음은 기도에 대한 믿음, 특별히 예수님 오실 때에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려는 믿음을 찾기가 힘들다.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데서 온다. 창조자, 구원자, 심판자, 재림자, 구출자, 위로자, 이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서 온다(롬10:17).

우리 앞에 놓인 세상

복음을 들으려 하는 자가 많지 않다.

특히 재림의 소식을 전하거나 들으려 하는 자가 많지 않다. 목사들이 구원과 성화, 재림과 휴거를 제대로 심도 있게 가르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늘 그랬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해야 할 일: 노아처럼 불신 세상에 외쳐야 한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시126:5).

이 일을 위해 인공 지능, 유튜브, 각종 SNS를 사용해야 한다, 의의 도구로

이런 도구들을 사용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 발굴, 지원

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번에 말세에 대해 전하고 왔다.

아이들이 우리말고 누구에게서 듣겠는가?

우리의 책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중책, 리더십, 아이들을 읽으면 실패하는 것이다.

교회와 국가에 좋은 지도자들을 허락해 주실 것을 간구하자.

세상의 변화를 볼 때 정말로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마지막 때이다.

소수의 남은 자만 구원받고 휴거받는다. 여기에 속한 자들이 되자.